월간 아가페 제408호 2018년 3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4347 FAX (718) 886-5555

▶ 3월 기도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愛加倍 · Агапэ

2018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기도의 달 특집
퀸장에서의 특별한 사순절
사순절을 기대하며

교회설립 44주년 기념예배
장학생 선발

God's Will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전성호 전도사 인터뷰
빈 그릇으로
나설 수 없는 길
말씀을 담아

생명현상에 나타난
하나님 창조의 법칙
-생명창조

2018. 3

www.kapcq.org

봄이여, 사순절이여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온 땅에 따듯함이 다시 찾아 왔습니다.

나무마다 푸른 싹을 틔우며
봄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는 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봄이 우거진 여름의 희망이 되듯
사순절은 부활의 소망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겨울은 지나듯
아무리 어려워도 사순절도 지날 것입니다.

봄이여, 사순절이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라.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Spring, Lent

After long winter, spring has come.
The warmth of spring now has arrived again.

Every tree buds green buds,
Leaving fragrances of spring.

This year's Lent that had begun in the last winter,
now is going through spring season.

As the season of spring always becomes the indication and hope of the flourishing summer, Lent tells us of the hope of resurrection.

As winter passes to another season, regardless of how difficult the season was, Lent will pass, as well, no matter how difficult the time would be.

Oh season of spring, and season of Lent,
Together in one voice, let's sing of God's grace.

春天啊，四旬斋啊

漫长冬季已经过去，春天来临。
全地复苏，温暖回升。

每颗树木开始冒出新芽，
散发着春天迷人的香气。

从冬季开始的四旬斋，
和春天一起结伴而来。

春天来了，进入夏天的希望就不会太遥远，
而四旬斋是复活的盼望。

就算再艰难四旬斋也要过去，
就好像再艰难的冬季过去一样。

春天啊，四旬斋啊
让我们一起手拉手，领受神的恩典齐声歌唱！

Весна, Великий пост

Прошла долгая зима, настала весна
На землю вновь приходит тепло

Деревья наряжаются в зеленое
Аромат весны приходит к нам

Зимой начался Великий пост
И вместе с весной он идет с нами

Проходя весну, мы видим и лето
С надеждой Пасхи, мы идем с Великим постом

Как бы нибыло тяжело пройдет зима
Как бы нибыло тяжело пройдет и Великий пост

Весна, Великий пост
Возмеся за руки друзья, воспоем о Божьей любви

아가페

제408호
2018.3

2 **신앙시론** | 봄이여, 사순절이여 — 김성국 목사
5 제31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 주제찬양 – 천성 가는 길 멀고 험해도 — 오인수 목사
6 **송이꿀 같은 말씀** | 진정한 자유인 — 편집부
8 2018년 2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 편집부
9 **추천도서** – 내 삶을 바꾼 감동의 만남 | 십자가의 도 — 오인수 목사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 배인구 전도사
10 **기도의 달 특집 1 | 컬럼** '모든 기도' 라는 무기 — 김재형 목사
12 **기도의 달 특집 2 | 퀸장에서의 특별한 사순절**
사순절을 기대하며 — 정경미 집사, 임혜성 집사, 김송화 자매, 이승조 권사, 설희숙 집사, Zhang Shi Hong
15 중국어예배 | 중국어 예배소식 — 편집부
16 2018 대심방 은혜나누기 | 평생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퀸장 사랑 — 김연희 권사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온 세월에 감사하며 — 편집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구역 — 최성은 집사
은혜와 감동이 넘친 대심방 — 정혜경 권사
18 30대 청장년 선교회 특집 | **God's Will** — 최원일 장로, 석영지 집사, 송현규 집사
20 쥬빌리 앙상블 | 제 1회 향상음악회 — 김해련 집사
21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예배 | 감동과 전율이 함께 한 예배** — 조성순 집사
22 **장학위원회** | 교회설립 44주년 기념 장학생 선발 및 시상 — Charlie Kim, 최채린, 이예슬
23 교육부 수련회 | 초등부 – The Lord's Prayer — 차윤일 집사
24 교육부 특별 활동 위원회 | 제 11회 아이노스 연주회 — 최효진 권사, Daniel Anbinder, Timothy Kim, Emily Sohn
26 퀸장 바이블 칼리지 | **성경대로 배우고, 삶의 지혜를 만나다**
QBC 를 통해 성경적 가정으로 올바로 세워질 God's Will청년 대학부 — 이진선 집사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40대 선교회 QBC — 손정호 집사
성경 속 인물을 통해 50대에 새롭게 만나는 '아부지' — 정해성 집사
QBC를 향한 기대와 60대 학생들의 열정' — 정혜경 권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퀸장 70대, 80대 — 허경화 장로
28 생명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 생명 창조 — 이승조 집사
30 인터뷰 | 부르심과 깨달음, 그리고 순종: 전성호 전도사를 만나다 — 남형욱 장로
31 청년 선교부 |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며 받는 또 다른 사랑과 은혜 — 정진웅 청년
32 2018 뉴욕 설 퍼레이드 | 메인스트릿에서 외친'예수 사랑하심은' — 이동훈 청년
34 **십자말 성경퀴즈** — 김기호 장로
35 2018년 1월 **새가족 안내** — 편집부

3월 교회 광고

제 56기 전도폭발 훈련이 3/4(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3주 과정을 시작합니다.
문의
오인수목사, 최원일 장로

제 5기 영성훈련이 3/8(목) 오후 8시 개강예배로 14주 과정을 시작합니다.
문의
윤원상전도사, 홍승룡장로

퀸즈성인대학이 3/6(화) 오전 10시 개강예배로 시작합니다.
문의
이양미 전도사

열린유아원 봄학기 개강
대상 – 만 18개월~36개월 (2/28일 기준)
개강 – 3/8(목) 오전 10시
등록 – 본 교회 교인자녀 (3/4 주일), 외부 (3/6 화요일, 오전 10시, 선착순 30명)
수업 – 매주 화, 목 오전 10시-12시
이명옥 전도사

태아교실 안내:
대상: 모든 임신 가정
장소: 영아부실
등록비: $20.00
일시: 3/11, 18(주) 오후 3:30-5:30, 수료 및 만찬 3/22(목) 오후 6:00
문의
윤지영 권사

새성전 건축 및 선교를 위한 세무봉사 접수 2주 후 세금보고 완성. 수익금 전액 새성전 건축 기금으로 봉헌.
기간: 2/18(주)-4/8(주)
매주일 오후 1:00-3:30분
장소: 205호
문의
정재윤 집사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Hananyme unhe imnyda
It is God's grace It is Gatz greis/잇 이즈 갓츠 그레이스
神的恩典 Shen de en dian/써언더 언대앤
Только благодать Tolika blagodat/똘리까 블라고다찌

사순절 주제 찬양

천성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주 말씀 향하여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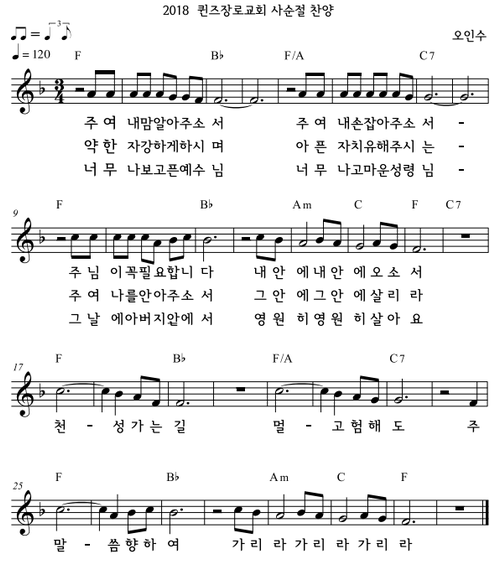
작사, 작곡 | 오인수 목사

올해도 사순절 주제찬양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성가는 길 멀고 험해도' 의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사순절 주제인 '천성 가는 길 멀고 험해도'를 후렴으로 정하고 나서 '처음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도하는데 신분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분문제'라는 단어 안에 개인과 가정의 수 많은 눈물과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내 맘 알아주소서, 주여 내 손 잡아 주소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이지 꼭, 주님이 필요하오니 '내 안에, 내 안에 오소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속히 응답하시길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 가사를 쓰면서는 아픔 가운데서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진정으로 아픔에서 해방되시기를,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구하며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아픈자를 치유해 주시는 주여 나를 안아 주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치유하시사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살리라' 그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사를 쓰고 불러보며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가사는 3절입니다. '너무나 보고픈 예수님 너무나 고마운 성령님 그날에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 ' 보고싶어요 예수님' 이 한 마디가 얼마나 사무치고, '고마워요 성령님'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녹이는지요. '주여 주여' 그토록 부르고 보고싶었던 주님 얼굴을 뵙는다면, 말 그대로 그것이 천국보다 더한 천국일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지요. 이미 충분하지요. 그 날을 고대합니다. 후렴구의 마지막 부분이 고민이었습니다. 찬란한 천국 모습을 그릴지,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야기가 좋을지 저울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새벽마다 강단에서 부어지는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리라는 마음을 담아 '주 말씀 향하여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2018년 사순절에 '천성가는 길 멀고 험해도' 찬양을 함께 부르며 매일 아침 담임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성 가는 길 멀고 험해도

2018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찬양



[21세기의 천로역정]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2018년 31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2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오랜동안 우리 교회의 사순절새벽기도회는 어떠한 악천후에도 많은 성도가 동참하며 신앙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결단과 전환점으로 삼는 전통과 역사가 있다. 40일 동안 절제된 생활과 기도를 통해 많은 기적과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
올해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John Bunyan1628-1688)을 골격으로 현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겪어야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 결단하고 승리하려 한다.
사순절은 회개의 기회이다.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위로받으며, 평강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며, 축복을 받아 성자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무겁고 추한 가식의 죄의 허물을 매일 새벽마다 훌훌 벗어 주님 앞에 내어놓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우리 모두 흰 옷 입은 천사와 같이 부활절을 맞이해야겠다.

진정한 자유인

2018년 2월 18일 주일설교
출애굽기 21:1-36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종의 제도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있었고 두고 온 조국에도 있었고 성경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제도를 통해 종을 풀어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 되었던 자가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 21:1-4)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나 육신이 자유하게 되는 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공급해준 주인이 없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특별히 종으로 생활할 때 주인이 주선하여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식을 두었다면 그가 자유인으로 나갈 때 아내와 자식은 두고 나가야 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자유하게 되는 제도에는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 된 자, 눌린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실제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자만이 포로 된 자이고 눌린 자입니까? 영적으로 포로 된 자, 눌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 8:31-36)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한,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어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종이 되라
오늘 본문에 육신의 자유, 제도적인 자유가 아닌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음을 봅니다. 자기의 육신적 자유를 찾아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나아가 죄의 종이 되느니 끝까지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출 21: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진정한 종이 되려면 그 주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일하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을 사랑할 뿐 아니라 처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군은 하나님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가족을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지만 아내와 자식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이래야 제도를 넘어선 자유인이 됩니다.

주인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뚫어야 합니다.

(출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는 종에게 가장 주요한 기관입니다. 주인의 말을 먼저 잘 듣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뚫어야 합니다. 문설주는 출애굽 때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곳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참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사 52:13-14)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53:4-5)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 받는 종이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주의 종이 되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 함이 있습니다.

(고후 3: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종이 되면 치유자가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 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2. 주의 신부가 되라
오늘 본문에는 남종의 상황만이 아니라 여종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출 21:7-8)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여종의 상황은 슬픕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여종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종에 불과한 여인이 주인 아들의 신부가 되면 주인의 딸같이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고 죽고 아주버니도 죽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룻은 그는 시어머니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한 농장에서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룻의 눈에는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어려움만 가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의 행동을 지켜보던 그 농장의 주인인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룻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버거웠던 인생이 축복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머리에 고통의 재가 덮여있었으나 이제는 아름다운 화관이 씌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역전시키신 우리 신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우리의 신분이 역전되었듯이 불리한 상황도 역전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3. 피난처로 달려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출 21:12-13)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죄를 지었으나 피난처로 도망가면 죽지 않고 삽니다.

다람쥐는 작고 연약한 짐승이지만 결코 맹수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람쥐는 놀라운 피난처를 갖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오면 다람쥐는 바위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바위틈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온갖 맹수의 공격에도 넉넉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17명이 죽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그 학교의 퇴학생이 복도를 오가며 무분별한 총격을 가할 때에 멜리사 펄코스키 라는 교사는 학생들을 옷장 속에 숨겼습니다. 안전하게 숨김으로 더 큰 희생을 막은 것입니다.

저는 로마의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던 지하도시입니다. 그 지하의 흙은 아주 특이합니다. 부삽이나 곡괭이가 없어도 손으로 파면 그곳의 흙은 다 파집니다. 그리고 파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모양이 바뀌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좀 더 파겠다고 하면 쉽게 흙이 파집니다. 그런 특이한 흙을 지상의 사람들에게 광주리를 통해 올려 보내고 그 광주리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아 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몇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며 많이 울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흙으로 안전하게 숨겨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피난처가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납니다. 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피난처가 없으면 죄의 참소 때문에 또 다시 죄의 종노릇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진짜 해방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주의 신부가 되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피난처로 달려가면 죄의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주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의 신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피난처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십니까?

2018년 1월 28일 주일설교 (이사야 55:8-9)

다르다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 라는 것만 알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성전건축이란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는 솔로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성전을 지으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계획은 당장 이루고 싶은 작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미루어진 것 같으나 더 큰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때때로 오래 기다리며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나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기대해야 합니다.

2.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모세의 방법은 40세때 자기의 주먹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의 80세때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하나님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갈대상자에 태워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부모님의 방법을 배웠어야 합니다. 갈대상자에 내 문제를 넣으라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3.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물이 떨어져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같은 무덤을 보고 죽는다고 말할 수 있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을 불러 품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일을 맡깁니다. 날이 저물어 품값을 줄 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인은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주인은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비참한 존재였던 것을 잊고 자기들을 불러준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계획, 방법, 계산이 다르십니다. 나와 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2018년 2월 4일 주일 설교 (출애굽기 19:1-25)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약속은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란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을 때도 피가 흘려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정체성,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 정체성, 사명입니다.

1. 방향-내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까지 우리가 만나는 고독, 질병, 성공, 재물,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사람의 거처와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2. 정체성-내 소유

하나님은 세계는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는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공급받는 존재, 보호받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3. 사명-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중보자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 사람들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출 19:6)

제사장은 참예배자로 자기 자신보다 가족, 이웃, 교회,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끝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이며 거룩한 삶은 복음을 전할 때 지켜집니다.

2018년 2월 11일 주일 설교 (출애굽기 20:1-26)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삶의 질서와 기준이 분명하고 그것을 지킬 때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질서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여야 할 것(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을 알려줍니다. 십계명이 깨어지면 행복도 깨어집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스런 짐이 아니라 행복의 샘입니다.

1. 십계명의 행복

1) 유일한 행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3-4절)

2) 온전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 이웃, 자신에게 다 좋은 온전한 행복입니다.

3)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2.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

1)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예수님에 대해 yes, 죄에 대해서는 no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설레이는 소개팅

한 권의 책을 읽는 건 그 한권을 작성한 작가, 즉 한명의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책이 저자가 품은 절실한 고민의 소산이듯이 독자 역시 이 책을 자신이 부닥친 문제에 대한 , 또 삶과 인간에 대한 절절한 관심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독서란 하나의 절실한 마음과 또 다른 하나의 절실한 마음이 만나 불꽃을 튀기며 타오르고 잦아드는 접화와 생성의 시간입니다.

물론 그 만남이 모두 좋은 만남일 리는 없습니다. 나쁜 만남을 통해 배우고 분별력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만남을 피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소개팅'(?)을 기획하였습니다. 삶을 바꾸고 깊은 감동을 끼친 만남을 소개합니다.

책 이름

십자가의 도

지은이

제시 펜 루이스

오인수 목사

단언하건대, 제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극적인 표현을 썼지만, 결코 오버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크며 엄청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에 오히려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고, 마치 또 다시 거듭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도 몰랐구나' 한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크기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감탄하며 엎드리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두란노에서는 저자 제시 펜 루이스를 20세기 초 영국 기독교의 영적 거인이라 소개합니다. 저는 저의 영적 은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제게 1900년대 초 웨일스 부흥은 전설과도 같은 사건인데 제시 펜 루이스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능력있는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선포했을 때 영국의 케직 사경회와 웨일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이반 로버츠와 워치만 니 등이 그 부흥의 불을 더욱 타오르게 했습니다. '결국 부흥은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 미국 교계 지도자들이 선정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빛낸 10대 고전' 중 한 권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이 아시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역시 고전이 고전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짧은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다소 딱딱해 보이지만 아주 단단한 책입니다. 160페이지 정도의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얼마나 꽉 차있고 무게가 있는지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시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미 익숙하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십자가, 복음이지만, 그래서 더 비밀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 서평을 읽지만 막상 책을 사서 읽기 까지는 참 쉽지 않은데, 부디 이 글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책 이름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부흥과 개혁사)

지은이

마이클 호튼

배인구 전도사

내용 소개: 이 책의 내용은 저자 마이클 호튼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 머리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쓰며 이 책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기독교 세계관을 위한 신학적 기초나 예술, 과학, 철학 등의 본질을 다루는 난해한 해설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서……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기독교인이 자기 믿음을 삶과 '통합' 하는 데 힘쓰기에 앞서 성경에 바탕을 둔 신학에 더 튼튼히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14).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하나님의 주권
2장 - 기독교와 문화: 영역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
3장 - 기독교와 학문: 일반 은혜의 가치와 한계
4장 - 기독교와 예술1: 기독교 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가
5장 - 기독교와 예술2: 신자의 삶에서의 예술
6장 - 기독교와 과학: 서로 가까워질 수 없을까
7장 - 기독교와 직업: 일과 휴식
8장 - 기독교와 현대 세계: 미쳐 버린 세계
결론 -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소유는 아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저자는 각 영역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창조와 구속이라는 영역의 틀에서 바른 구별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추천 이유: 이 책은 제목 처럼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입니다. 세계관이란 안경과 같아서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듯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도 모르게 자리잡은 강박관념과 고정관념들을 다시 바르게 인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느낀점: 나의 신앙과 삶에 큰 도전이 있는 책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리잡은 세속화 되어버린 교회관, 청지기관, 문화관 등등 수많은 영역들이 드러납니다.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책도 아닌, 생각할 거리를 참 많이 주는 책이며 진정한 개혁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책으로 느꼈습니다.

천로역정을 통해 살펴보는 기도

‘모든 기도’라는 무기

– 김재형목사 –

천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의 계속 되는 여정 가운데 잠시나마 하나님이 지으신 휴식의 장소에서 쉬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때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순례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검과 방패, 투구와 호심경, 닳지 않는 전투화등과 같은 굉장한 무기들이 가득한 무기창고를 들르게 되는 데, 이곳에서 크리스천이 습득한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 그것은 바로“모든 기도”라는 무기였습니다. –

이 무기는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이 무기는 마귀와의 직접적인 전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는 천로역정에서 마귀와 직접 대면해서 싸웠던 싸움보다 더 험난한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의 장소였습니다. 직접적인 적은 보이지 않는데도, 죽음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루며 도망쳐서 돌아오는 중에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로 가기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오른 편에는 아주 깊은 시궁창이 있었고, 왼편에는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다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유혹의 늪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나있는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 좁은 길은 점점 더 좁아지기만 합니다. 너무 좁고 위태로워서 시궁창을 피해 지나가려다 보면 반대편에 있는 늪에 빠지기 십상이고, 늪을 피하려다가 잘못하면 시궁창에 빠져 버릴 것 같습니다. 주위는 너무 어두워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던 크리스천의 입에 꺼질듯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다음 발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 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설상가상 이제는 불구덩이까지 나타나 불꽃과 화염으로 크리스천을 덮어 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쫓아오는 적들의 목소리가 들려 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크리스천… 이 난관 가운데, 크리스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서 싸우려 하지만, 형체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 때, 크리스천은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 들고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 이 모든 기도 가운데, 다시 크리스천은 이 난관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혼란 스럽고,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들이 크리스천을 둘러싸 그를 공격할 때에 이 크리스천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무기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몇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천로역정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던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무력감을 대면합니다. 이 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똑바로 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주위에 들리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때, 그가 찾은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시 116:4) 삶의 길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전적으로 의지)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너무나 궁핍하고 무력해서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기도는 달리 손 내밀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위해 마련된 길이다… 기도를 드린다는 건 자신의 참담한 실상이(내 힘과 능력으로는)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어서 무얼 하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피터 포사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 ‘지금은 성령 충만하

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기도는 내 마음이 부유할 때, 용기가 넘칠 때, 아주 기쁠 때,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성령충만할 때에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약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기도하지 않고, 이 인생의 길을 자신있게 걸어갈만큼 그 마음과 상황이 부요하고 평안하고 안전한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속을 걷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평안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의지해야지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 그가 지나온 길들과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그가 지나가야 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둘러보자, 그는 이 길이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위험하여 지는 길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 태양이 비출 때에 크리스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모든 것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리게 합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은 좁은 정도가 아니라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조바심나고, 답답하고, 분노, 질투, 불안감이 마음속에 찾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성경말씀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을 겸손히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시편 42:5) 그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인내하고 반드시 시련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기도하면(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서 입니다.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음은 주님의 은혜로다! 보좌 위에 앉으신 통치자 예수를 높여 찬양하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사 43:7)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평안과 축복이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약 1:17-18)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2.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이델 베르그 문답 117문은,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치 않는 기초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자격이 없으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1)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 매일 알아가며,
2)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성경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근거하여 (요 4:22-24, 말씀 생활 없이 온전히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3) 나의 정성과 온 맘을 다해(기계적이고,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4)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연약함, 죄악됨, 추악함, 수치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시 145:18, 역대하 7:14)
5) 나의 기도제목을,
6)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약 1:6, 롬 10:13)

3.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이델 베르그 문답 118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간에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기쁜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 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 무엇이든지 그분께 의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안에 그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기도제목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점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들을 같이 보고, 그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도 향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쉼이 없습니다 (살전 5:6) 쉬어서는 안됩니다. 멈추지 마시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완수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존 번연 ‘천로역정’, 팀 켈러 ‘기도’ 인용, 케빈 디영 ‘Good News We Almost Forgot.’ 하이델베르크 신조 인용.

천성 가는 길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퀸장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한 퀸장에서의 특별한 사순절 이야기를 통해 2018년 천성 가는 길에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나같은 죄인 때문에

정경미 집사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날 살리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같은 죄인 때문에'

사순절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여러 해전에 사순절 새벽 기도회 동안 매일 교회를 오고 가면서 힘들다는 생각만 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새벽마다 힘들게 나와서 잠도 못자고 피곤한데 기도한다고 나와 불평만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내가 잘났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하러 고생하며 나오나 하는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을 하며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갔었습니다.

그 해 그렇게 사순절의 막바지를 향하여 가며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영상에 비친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감동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특별 찬양으로 불려진, 바로 그 찬송 '우리 때문에'를 듣는 순간 저의 마음에 맺혔던 모든 교만과 억눌림이 툭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나 같은 죄인 때문에,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분을 생각하며 찬양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나의 무지한 생각때문에,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불평 뿐이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예수님만을 위한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할렐루야!

한동안 사십일 동안 하는 새벽기도회가 부담이었던 것이 이제는 매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사순절에는 특별히 마음에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으며,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그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생명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잊을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첫 사순절 – 새벽3시 45분 알람소리

임혜성 집사

어느덧 나는 40대에 접어들었다. 이젠 한남편의 아내이자 두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교회만 왔다갔다하는 소위 날라리 신자가 되어버렸다. 두아이의 양육에 지친 핑계로 예배는 물론이고 사순절에 참여를 못한지도 어느정도 되었는데, 집사님의 부탁을 받고 나의 풋풋했던 20대시절의 사순절기간에 대해 추억해보았다.

미국에 이민오고나서야 십대에 열심히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사모함으로 정말 열심히 다녔었다. 퀸장의 사순절은 나의 인생에 처음이였고 기도란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라는걸 알게된 계기였다.

새벽 3시45분 항상 알람이 울리는 시간이였다. 먼곳에 살았었기에 그시각에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으면 강대상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을수가 없기때문이였다. 몸이 힘들긴했지만 그시절의 새벽공기는 너무나 상쾌했고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는 것이 마냥 행복했었다. 타국에 살기때문에 무조건 남들보다 일찍 남들보다 두배노력해야한다고 믿고있었기에 사순절은 나에게 큰 도전이기도 했던것 같다.

6주라는 시간이 생각하면 짧은 기간이였지만, 매일 새벽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큰 하나님과의 약속이였고 매일 이불과 전쟁하듯이 일어나야만 했었다. 이민자로의 미국생활은 생각에 비해 쉽지않았고 힘든 것 투성이였다. 그래서였는지 사순절은 나에게 기회였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걸 해결해달라고 울고 매달리는 너무나도 간절한 시간들이였다. 강대상앞 카페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떨어뜨리고 다리가 저릴정도로 무릎으로 간절함에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눈물로 씨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찬송을 수십번씩 부르며 얼마나 통곡해서 부르짖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기도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어떤 것은 바로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루어졌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이루어진 것들도 있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나의 아버지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신데, 나만 잊고 살았나보다. 아직도 여전히 난 사소한 일에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고있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다.

2018도의 사순절은 나에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처음처럼 간절하게 절실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십자가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승조 권사

몇해전 부활절을 사흘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던 모습을 재현하는 퍼레이드를 아스토리아의 한 거리에서 우연히 보게되었다.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군인들의 호령 소리와 예수를 때리는 소리 (효과음으로 땅을 세게 쳐서 내는 채찍 소리)가 귀를 울리며 들려왔다. 지나던 발걸음을 멈추고 거리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과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열심히 사진을 찍는 이들과 동영상을 찍는 모습들도 눈에 들어왔다. 어떤이는 매년 행해지는 퍼레이드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떤이는 재미있는 볼거리를 보듯 친구와 떠들며 보고 있었다. 자신과는 상관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안다고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믿는 이들에겐 숙연함과 안타까움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퍼레이드란 생각이 들었다. 불과 얼마전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지 않았던가! 퍼레이드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달랐듯이 2000년전 그때 그 무리에 있던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는데 난 그저 다시 돌아온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천성에 가는길 험하여도' 사순절을 여는 오늘 아침 말씀에 따라 회개함으로 나 자신과, 이 도시, 내 조국, 세계 열방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사순절이 될 것을 믿으며 천성을 향한 발걸음을 옮긴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설희숙 집사

부활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듯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새롭게 다짐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새벽기도회의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2018년 이번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신 "천성에 가는길 험하여도 " 라는 제목으로 풍족한 은혜를 받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며 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 우리 가족의 기도제목은 한국에 계신 아버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매일 매일 주실 사순절 말씀을 통해 기적의 주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我要回家，回到我父的家

나는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金松华姊妹 김송화 자매

韩中长老教会四旬斋晨祷会即将开始。何等的期盼，期盼在四旬斋期间，更加的默想神为我的罪受死，把我从黑暗的死亡中拯救出来的恩典，也更使我来思想救恩对我生命的意义。
忙碌的移民生活，总是把我的视线分散在各处，忙着工作，忙着学习，每一天都在忙不完的事情中耗尽精力，对神的救恩冷淡或是记忆不深。深夜独自站在窗前，反思我的生命，为自己生命的凄凉嚎啕大哭，犹如浪子在异乡想到父家，与父同在的时刻并与现今离开父怀抱的凄凉。我要回家，我要回到我父的家~我要用我的生命来经历那位又真又活的神，不单是风闻有你，而是亲眼看见你。借着受难周与复活节，求神帮助我们明白，并不是我们为神做了什么，而是神为我们所成就的一切。我们呼求神的作为临在，让我们体验到你的真实，求神向我们显明祂自己，好让我们可以像祢的儿子耶稣基督。

《耶稣受难记》这部电影，我会在受难周与复活节期间来再次观看。看完之后，泪流满面，心已被撕碎。将来有一天，在荣耀里，我要去看耶稣的伤痕，为我被钉十字架的伤痕，因为神用这些伤痕来救赎世人。

让我们在四旬斋期间，一同来读一读关于耶稣受死的经文，我们将会遇见祂。然后我们一同成为一个争战的人、平静的人、有爱心的人，无所畏惧的人。这是可能的! 到耶稣面前吧，加入到晨祷中来吧！

퀸즈장로교회 사순절새벽기도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흑암에서 구원해주신 그 은혜와 구원이 나의 생명에 준 의미를 다시 묵상케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분주한 이민 생활은 나의 시선을 항상 여러 곳으로 분산시킵니다. 바쁜 직장생활, 공부 그리고 매일 끝없는 일들로 인해 온 힘은 다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 또한 미지근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홀로 깊은 야밤에 창턱에 앉아 나의 생명을 돌아보며 나의 영적생명의 처량함에 통곡합니다. 마치 탕자가 타국에서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그 때를 돌아보며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처량함과 같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뵌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사 그분의 진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예수 수난기》영화를 고난주간과 부활절기간에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보고 나면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훗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처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순절기간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구절을 읽으며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는 자, 평온한 자, 사랑이 있는 자,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순절기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再一次期盼四旬斋晨祷会.

张世红姊妹

2016年早祷会期间我来到韩中长老教会，当时犹豫了一下要不要去参加，后来想下班那么晚，还要上学上班没有时间（为自己找了一个很好的借口），当人不去亲近神的时候总是有各种各样的借口。

在教会一年之后，2017年的早祷会再次来到了，这次我下决心一定要去参加看看这早祷会到底是什么样子的。第一天的凌晨挣扎着爬起来，睡眼惺忪地出门，到达教会的时候已经迟到了十几分钟。进入大堂的那一刻，我的感觉只有一个词来形容“震撼”，超级震撼，硕大的主厅里座无虚席，鸦雀无声。只有主任牧师充满激情的讲道声和弟兄姐妹们回应的阿门，尤其是结束时，“主啊，主啊！”那发自内心深处的呼喊，重重的撞击着我的心灵，

那一刻我在想“我”是一个真正的基督的门徒吗？我真的将自己全然交托给主，让主做我生命中的主宰，做我永远的掌权者吗？曾经我以为自己爱主很深，听道，每天读经，祷告，但其实就像那撒在浅土石头地上的种子，土即不深，发苗最快，日头出来一晒，因为没有根，就枯干了。从前我是一个佛教徒，每天在家里烧香拜佛，父亲去世的时候我甚至每天几十几百遍的背诵往生咒，祈愿我的父亲能够投胎转世有一个好的人生，即使我信了主也从来没想过我那是做了一件多么罪恶的事；甚至在我信主很多年后，我也并没有真正的放下假神，真正的打开我的心门迎接主耶稣进入。我一直都在想为什么我会在这里？为什么我要在这里？早祷会让我明白因为是主，因为是耶稣，祂一直都知道我的需要，我的欠缺。所以主赐给我这个属灵的家。　主必再来的日子近了，我虽渺小主却不愿丢弃我，我虽卑微，主却仍然视我为眼中的瞳人，祂视我为独一无二的珍宝，我却总是背弃神，做祂不喜悦的事，爱人胜过爱神。

2018年的早祷会，求主为我预备足够的时间和精力去学习和领受神的话语，赐给我足够的智慧去引领我的家人脱离假神的辖制，认识这位又真又活的救主。鼓励弟兄姐妹一同参加今年的40日四旬斋早祷会，一同经历神，领受神的话语，复兴我们的生命，我们的教会。感谢赞美主！愿荣耀归于我们的主耶稣基督！

사순절을 기대하며

Zhang, Shi Hong 자매

저는 2016년 사순절 기도회때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 때 기도회에 참석할까 고민했었지만, 퇴근도 늦고 학교도 가야하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을 때 여러가지 핑계들이 생깁니다.

1년 후, 2017년 사순절기도회가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도회가 궁금해서 한번쯤은 꼭 참석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첫 날 새벽은 비몽사몽 겨우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십몇분 지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을 한마디로 ‘감격’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였습니다. 예배당에는 빈좌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고, 다만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 넘치는 설교와 성도들의 아멘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마지막에 다 함께 “주여, 주여!”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나의 심령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진정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원한 통치자로 드렸는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매일 말씀도 듣고, 읽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마치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린 비유와 같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불교신자였습니다. 매일 집에서 향을 피우며 불상을 섬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심지어 매일 몇십번, 몇백번씩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나서도 저는 제가 한 행동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몇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가짜 신을 내려 놓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나는 여기에 왜 있어야 할까? 기도회를 통해 나는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 우리 예수님때문입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적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작지만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는 비천하지만 주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2018년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분한 시간과 힘을 주셔서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이 가짜 신의 결박에서 벗어나,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올 해 40일 사순절새벽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아 다시 우리의 영적 생명과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但以理青少年团契 다니엘 청소년모임

每月第二和第四个周五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

6-8PM

但以理在少年时，就敬畏耶和华，立志遵从神的律法与典章，并且将自己分别为圣，单单的归于神。这样的少年生命是我们所渴望的，我们盼望教会中的少年人也能够拥有但以理的生命，从少时就认识神，敬畏神，遵从神的命令，一生蒙福。不单止自己蒙福，但以理的生命也感染影响了很多身边的人，在那世代为神作见证，使很多人认识耶和华，将荣耀归于神。我们也期盼借着这个团契成为一个平台，能够带领更多的高中生与大学生来认识耶稣，信靠耶稣。借着如此的感动与盼望，但以理团契成立了，在这个世代，在这个社区，为主发光。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의 율법과 도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렸다. 이런 청소년 영적생명은 우리가 갈망하는 부분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청소년들도 다니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여 일평생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적 생명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한다. 다니엘은 또한 자신만 축복 받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이 모임을 통해 더 많은 고등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임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 모임을 만들어졌고, 이 시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발하길 바란다

爱加倍夫妇团契 아가페 부부모임

每月第四个周五 매달 넷째 주 금요일

7-9PM

夫妻是家庭的核心，是儿女的顶天柱，是社会的基石。夫妻关系出问题，家庭就出问题，社会也跟着出问题。整个人类社会是由一对夫妻开始的，夫妻也是预表基督与教会。因此，夫妻关系攸关重要。我们祈祷也盼望，我们教会的每一对夫妻都能够在基督里恩恩爱爱，每日夫妻间的爱情都能够加倍。爱加倍团契亦因此而生。在团契中，我们夫妻在主里一同学习、一同成长、一同更新与改变。晓得如何沟通，如何清理彼此间所累积的垃圾，如何彼此理解，如何互相扶持，成为彼此的祝福。最终，夫妻二人更加的亲密，在基督里合而为一。

부부는 가정의 핵심이고 자녀들의 버팀목이며 사회의 초석이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 인류사회는 한쌍의 부부로부터 시작되였다. 부부는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매일 배가 되길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 모임을 통해 부부가 주님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며 함께 새롭게 되고 또한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서로 쌓였던 문제들을 정리하며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서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 알아가며 서로간의 축복이 될 것이다. 마침내, 부부 두사람은 더 친밀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란다.

中文堂消息

중국어부 소식

1.中文堂因着人数的增加，主日崇拜多了下午堂。崇拜主要是以青年人为主，希望能够吸引更多的青年人回来教会参加崇拜。

时间：2：30 PM　　시간:2:30 PM

地点：副堂　　장소:QPEM

传道人：陈玉捷传道　　전도사:천위제 전도사

중국어부는 인원 증가에 따라, 새로운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2.中文堂教育部2月份另开始了儿童主日崇拜。 崇拜主要是以6岁至12岁的孩童为主，与成人崇拜同步。请为以上的崇拜代祷，谢谢！

时间：9:30 AM　　시간:9:30 AM

地点：B02室　　장소:B02방

传道人：孙约翰传道　　전도사:손요한 전도사

중국어 교육부는 2월부터 새로운 얼통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6-12살 아이들을 위주로 오전 대예배와 같은 시간에 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심방을 통해 구역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1교구 뉴저지 1지역

평생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퀸장 사랑

김연희 권사

매 주일 2부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내려가면 테이블 한켠, 집에서 가져오신 정성스런 음식과 다과를 한상 차려놓으시고 담소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즐거운 교회만찬을 다른 성도들과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이 1교구 뉴저지 1지역식구들이시다.

멀리 George Washington Bridge (일명 조다리) 를 멀다하지 않고 길게는 30년이상을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모인 구역이다.

현재는 전성호 전도사님께서 지도원, 전광인권사님이 지역장을 맡고 계시며 구역원으로는 길학문 장로님, 길길자 권사님, 황복순 권사님, 이안식 장로님, 이화자 권사님, 윤영철 장로님, 윤자숙 권사님, 장세훈 집사님, 장영오 권사님,박지운 집사님,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 하신다.

오래는 청장년시절부터 한결같이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나라를 위해 ,퀸즈장로교회를 위해 헌신한 귀한 분들이 모이셨다.

연로하신 은퇴장로님 가정들이 주를 이룬 구역이다보니 오랜 믿음의 친구, 동역자로 나눈 세월과 추억들이 쌓여져 한 가족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퀸즈 장로교회 사랑'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 구역이다.

이렇다 보니 오직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퀸즈장로교회 사랑으로 어떤 일기 변화에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먼길을 나서시며 주일성수를 꾸준히 지키시는 어르신들의 우직한 믿음을 볼 수 있다.

올 해 대심방은 담임목사님과 고부영 전도사님을 모시고 한 가정에 모두 모이셔서 한 말씀을 받으며 한 가족이 되어 예배를 드렸다고 하신다. 담임목사님께서 시편 122편 1-9절 말씀을 주시며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두번의 톨비용을 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먼곳에서 40년 이상 교회에 나오셔서 섬기시며 헌신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헌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한분한분 위험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으시면서도 교회의 기둥으로 섬기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정마다 평안과.형통의 복이 임하시길 바라시며 축복해주셨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에도 건강과 평안과 형통함이 임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를 해주셨다.

대심방을 통해 다시 가지는 다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 퀸장은 내 교회다' 라는 것이라고 하신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들을 대심방을 통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심방때에 모두 모여서 찍은 사진이 없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며, 아가페에 구역식구들이 모두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가정마다 사진을 찍어서 아가페 편집부로 보내주셨다. 그 정성을 모아서 1교구 뉴저지1지역 식구들의 모습을 한자리에 담아보았습니다.

2교구 플러싱 8지역 남효순 권사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온 세월에 감사하며

편집부

기자의 눈에는 익숙하지 않은 남효순권사님을 계화자전도사님의 안내로 만날 수 있었다. 86 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예의를 정중히 보이시는 것이 인상적이였다.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짧은 시간이지만 숙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민 오실때 부터 시작하여 우리교회를 오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시며 퀸즈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세월과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심방을 받을 수 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다.

한국에서 남편을 여의고 내린 결정은 미국에 가서 1남4녀를 키우고 싶으셔서 미국에 오게 되셨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교편생활을 했지만 이곳에 와서는 미국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시작할수 밖에 없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있으셨다.

뉴욕에 오셔서 식료품점에서 일하시며 차츰 사업도 배우게 되고 많은 이민자들처럼 바쁘게 사시며 핑계아닌 핑계를 대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멀리하며 지내다가 어느날 잊고 있던 주님이 마음에 밀려 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단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신앙생활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셨단다. 힘든 시절 아이들과 함께 지낼수 있는 family house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 더 큰 물질의 축복으로 응답받기도 하였으며 믿음으로 키운 자제분들이 요소요소에서 잘 지내고 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다.

세상의 욕심도 마음껏 누려 보셨다는 권사님은 이제 '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과 가까워 지는 것' 이 가장 큰 소망이며 퀸즈장로교회 출석하여 이렇게 대심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 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나' 에게 맞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은혜의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신다.

더불어 성도들이 대심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며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가호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3교구 베이사이드 6지역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구역

최성은 집사

저희 3교구 BS 6지역(지도원: 남정현 집사, 지역장: 남인화 권사) 에는 가정의 대표로 구역예배에 꼭 참여하는 정예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정예 멤버들 대부분은 오랜 시간,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함께 했기에 마음이 척척 맞아 작년 대심방때에는 하루 저녁 동안 구역원들 전원 집심방을 일사천리로 마치는 기록을 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금년 대심방때에는 심방 계획을 논의하며 여러 사정들을 맞추다 보니 지도원 집사님댁에 모두 모여 함께 심방을 받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남정현 지도원 집사님과 남인화 권사님께서는 매번 구역예배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신데 대심방때에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약속된대로 1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이양미 전도사님을 모시고 저희 구역은 대심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남정현 집사, 남인화 권사, 김영임 권사, 차광혁 집사, 신진숙 집사, 심성문 성도, 최성은 집사였고 먼저 예배 시작 전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 이양미 전도사님께 제출하였고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만 보내온 지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꼼꼼히 나눈 후에 이양미 전도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383 장을 부른 뒤 사도행전 13장 21-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양미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라는 주제로 지역 식구들 모두가 가슴에 새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셨던 돌아가신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뒤이어 헌금 시간을 갖고 다함께 합심 기도를 한 뒤 주기도문으로 합동 심방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후에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신 지역장 남인화 권사님의 맛있는 잔치국수로 식사를 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에 예쁜 고명들이 곁들여진 잔치국수와 맛깔스런 반찬들로 식사를 마친 뒤 후식을 나누며 지역 식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역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영적, 육적으로 충만했던 2018년 대심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교구 롱아일랜드 1지역

은혜와 감동이 넘친 대심방

정혜경 권사

저희 3교구 BS 6지역(지도원: 남정현 집사, 지역장: 남인화 권사) 에는 가정의 대표로 구역예배에 꼭 참여하는 정예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정예 멤버들 대부분은 오랜 시간,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함께 했기에 마음이 척척 맞아 작년 대심방때에는 하루 저녁 동안 구역원들 전원 집심방을 일사천리로 마치는 기록을 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금년 대심방때에는 심방 계획을 논의하며 여러 사정들을 맞추다 보니 지도원 집사님댁에 모두 모여 함께 심방을 받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남정현 지도원 집사님과 남인화 권사님께서는 매번 구역예배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계신데 대심방때에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약속된대로 1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이양미 전도사님을 모시고 저희 구역은 대심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남정현 집사, 남인화 권사, 김영임 권사, 차광혁 집사, 신진숙 집사, 심성문 성도, 최성은 집사였고 먼저 예배 시작 전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 이양미 전도사님께 제출하였고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만 보내온 지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꼼꼼히 나눈 후에 이양미 전도사님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383 장을 부른 뒤 사도행전 13장 21-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양미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라는 주제로 지역 식구들 모두가 가슴에 새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셨던 돌아가신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뒤이어 헌금 시간을 갖고 다함께 합심 기도를 한 뒤 주기도문으로 합동 심방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후에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신 지역장 남인화 권사님의 맛있는 잔치국수로 식사를 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에 예쁜 고명들이 곁들여진 잔치국수와 맛깔스런 반찬들로 식사를 마친 뒤 후식을 나누며 지역 식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역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영적, 육적으로 충만했던 2018년 대심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God's Will 을 묻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다

최원일 장로

t30대 통합 선교회가 2017년 12월 발족한 이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이름도 생기고 헌신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최원일 장로님과 인터뷰를 통해 30대 선교회인 God's will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4개 30대 선교회(에스더, 뵈뵈, 디모데, 요한)를 하나로 묶은 목적과 취지는 무엇인가요?

묶으면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으로 묶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면 한 그루의 나무 일 때 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할 때 더 잘 되는게 있고, 흩어져 따로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대 남녀 선교회는 하나로 묶었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질풍노도' 라는 청소년기를 빼면 인생의 싸이클 전체를 놓고 볼 때 30대가 가장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배우자와의 관계, 육아, 재정독립, 이런 인생의 큰 이슈들이 30대 때 처음으로 부닥치게 되잖아요. 40대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이고, 20대는 그런 이슈가 아직 없거나 크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30대는 신앙생활에 시험과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약점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런 삶의 약한 고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30대 특유의 강점으로 발산하는 데는 '혼자'가 아닌 '함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첫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 열두 제자 말고도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3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 '여러 남자와 여자들' 또한 30대였을거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0대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교회와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활력이 더욱 크게 넘칠 거라는 소망으로 기존 네개의 30대 남녀 선교회 (에스더, 뵈뵈, 디모데, 요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지켜 보시면서 느끼신 현재 30대 선교회의 모습과 앞으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를 둘 다 지키려는 우리 30대들의 몸부림이 눈물겹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며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수 십년 전의 30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불과 10여년 제가 30대 였을 때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니 나의 '개인기'로 이 상황을 돌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인가? 선택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30대 교인들의 대부분은 바른 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울기도 하고 주저 앉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구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고 있어요"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정작 그렇게 허락하신 아이 키우느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봅니다. 배우자, 직장, 집 마련…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기도제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 할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제가 섬기는 선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소망입니다.

선교회 이름의 의미와 앞으로 이 선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역도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선교회 이름의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God's Will) 을 배워서 알고 그 뜻대로 행하자' 입니다. 방향은 '회복' (Restoration)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에서의 각자의 Role에 대한 회복, 교회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회복등이지요. 그 회복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나로 만족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묵상하던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갓즈윌 (God's Will)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God's Will)을 배워서 알고, 그 뜻대로 살자는 취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갓즈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육과 육아 그리고 친교를 통한 '기본으로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튼실한 바탕 위에서 봉사와 전도 및 선교 등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연간 사역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여서 매주일 명강을 이어가고 있는 QBC를 통해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과 가정에 적용하는 훈련이 상반기의 포커스입니다. 성경적인 재정운용, 성경적인 가정교육 등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발표 등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성경의 원리를 체득하게 도울 것입니다. 4월초로 예정된 '갓즈윌 1박2일'과 자녀들의 돌이나 가정의 기념되는 날들을 함께 축하하는 다양한 친교를 통해 갓즈윌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낭비가 아니라 재밌고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라는 공감을 얻어내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교회인근 공원에 '유모차 전도'를 통해 우리 눈높이에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전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2월 초에 드렸던 갓즈윌 헌신예배에서 보여지듯 우리 공동체의 최대 강점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갓즈윌 청장년부는 물론 다른 선교회와 교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30대는 우리교회 10년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God's Will 의 헌신과 고백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석영지 집사

"아기 때문에 자모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 손길이 유난히 많이 가는 때라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멀어지면서 마음이 불편해 졌습니다." "가정을 위한 생계형 직장인이 되다 보니 주중에 까지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 부담 되기 시작했습니다." – 예전과는 달라진 제 삶 때문에 하나님과 저는 멀어진 것인가요? 이대로의 제 신앙생활 괜찮은가요?

2월7일 수요예배가 God's Will선교회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God's Will 선교회는 새로 만든 로고가 찍힌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자모실에만 있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제단 앞에 나와 30대의 고백을 담아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책임지며, 점점 많아지는 직장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의 사역!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무게로 다가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되는 30대임을 고백합니다.

청년 때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점점 식어가며 눈앞의 현실이 힘겨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30대의 삶…

이런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한순간도 부여잡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갖즈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은 잔잔하지만 진심이 담긴 곡조의 찬양을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감사의 눈물, 위로의 눈물, 청년 때 흘렸던 주님과의 첫사랑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착한 아들 , 딸들아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가라" 하십니다. 우리 30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품어 주시는 퀸즈장로교회처럼 우리 갓월 선교회도 가정과 교회를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30대를 지나온 분도 계시고, 서른 살에 이르지 않은 분도 있지만, 오늘날을 30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유별날까 싶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30대를 집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매일 눈뜨는 하루하루가 내 인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어서 낯설지만, 30대라 더욱 낯설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 예전과 다르게 짊어지고 가야할 것들이 늘어가고 책임의 무게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대 때와 다르게 이제는 돌보아야 할 가정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더 이상 루키가 아니거니와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인생 대전환이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능력자로 척척 잘하고 싶은데…오늘도 삐걱거리며 허덕이며 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30대는 연약함을 바라보며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연약 해도 좋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서 폭포수 같이 쏟아 낼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갈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God's Will 회장을 만나다

찬양과 기도로 새롭게 나아갑니다!

송현규 집사

God's Will 선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게 된지 벌써 두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담임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가운데 귀한 영혼들을 모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육아를 병행하기에 바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이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저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속에서 여러가지 핑계로 예수님을 잊고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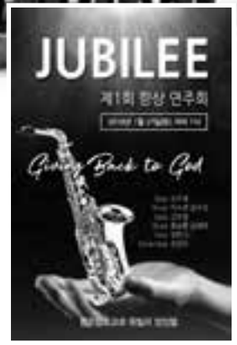
모임의 시작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속의 가정'이라는 이번 학기의 주제는 특별히 30대에 속한 우리 가정에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가정속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헌신예배를 드릴수 있게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God's Will 선교회 회원들이 많은 기도와 준비를 통해 드리게 된 예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의 온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헌신예배 일주일 전부터는 고리 금식기도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드려진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회에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God's Will 선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주시는 김성국 목사님,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시는 이명옥 전도사님과 최원일 장로님, 임원단과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려합니다

김해련집사



교회 대내외의 연말행사로 분주했던 쥬빌리 앙상블, 새해가 시작되고 활동이 잠잠해지자 대원들의 연습열정이 살짝 식어졌습니다. 대원들의 나태해진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신 싸부님께서(윤원상전도사) 협박어린(??) 제의를 하셨습니다. 매달 한번씩 향상연주회를 열자고 하십니다.

향상연주회의 취지는 말그대로 대원들의 연주실력을 향상시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곳으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색소폰을 들고 나가렵니다.

연주회형식은 찬양곡을 중심으로 독주, 듀엣 그리고 합주로, 전체 연주시간을 30분정도로 잡았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연주회스케쥴에 독주와 듀엣팀은 바빠졌습니다. 수,목,토 한시간씩 있는 합주연습시간외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시간을 갖고 ,전도사님한테서 개인별 레슨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2주동안의 맹연습 후, 지난 1월27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는 쥬빌리앙상블 첫 향상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광고가 없었던 관계로 대원들의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을 모시고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솔로무대는 다들 처음인지라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한사람 한사람 연주때마다 관중석에서 보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무언가를 열심히 적으십니다. 한번 무대 경험이 백번 연습보다 낫다(??)는 근거 없는 설도 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쥬빌리앙상블 향상연주회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7시에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감상 수준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또 쥬빌리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을 쥬빌리 연주회에 초대합니다. 아무 부담없이 오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 생명 다할 때까지 이어가리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104:33)

—

2월 4일(주일) 각 부 예배후 담임목사님, 찬양국 임원들과 모든 찬양대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찬양대를 섬기시고 은퇴하게 된 네분의 선배찬양대원들을 축복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임마누엘찬양대 – 김영호집사님 (20년), 호산나찬양대 – 김윤정 권사님(40년), 시온찬양대 – 이옥수 사모님 (29년), 정상모 집사님 (25년) 께서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찬양대원으로 아름다운 섬김을 하셨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꽃다발과 함께 후배찬양대원들의 아낌없는 박수로 선배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 사랑의 마음이 전해졌고 이후 담임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이어졌다.

생각지못한 이례적인 행사에 쑥스러운 듯 미소로 화답하시는 은퇴 찬양대원들의 모습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느껴졌다.

비단 찬양대 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퀸즈장로교회를 섬기시며 설립44주년의 오늘의 퀸장을 후진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살아있는 섬김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들이기에 더욱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였다.

비록 찬양대원으로는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하시며 후배들의 정성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다.

귀하고 아름다운 본을 남기시고 떠나신 그 자리를 남겨진 후배찬양대원들이 더욱 든든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더불어 찬양국의 각별한 공동체 사랑과 선배들을 향한 예우의 모습이 더욱 뭉클한 감동을 주는 행사였기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사가 되었다.

감동과 전율이 함께한 예배

조성순 집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퀸즈 장로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예배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밤새도록 내린 비가 지난 겨울을 통해 땅속까지 깊이 언 생명의 대지를 녹이는 2월의 마지막 주일, 44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시듯 하루 종일 강약을 조절하며 내렸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에서 스스로 굳게 하여 섬겨 일하며 다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시는 김성국 목사님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열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사랑만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자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그 복음의 소식을 나누어야 함을 힘을 주어 외치시며 설립 44주년을 기념하는 퀸즈 장로교회와 우리 모두의 감당할 사명임을 분명히 하셨다.

44주년을 기념하는 교회의 강단엔 그 흔한 꽃 장식도 흔히들 준비하는 설립 00 주년 감사가 새겨진 타월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퀸장엔 남들과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 바로 복음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그런 외형적인 것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범적으로 섬겨주신 선진들의 섬김으로 오늘의 퀸장이 있는 것이다. “정성있는 두 렙돈으로 인하여,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인하여, 그리고 말씀이 있었기에 44년이 이와 같을 수 있었다”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퀸장의 오늘의 모습은 설명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한 교회’ 의 말씀이 선포 되었고 이어 12분의 명예권사 추대패 수여의 시간이 있었다. 한분 한분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을 숨길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열심으로 섬겨 오셨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작은 꽃다발로 대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정성으로 대신함으로 훗날 하나님께 받으실 칭찬을 바라보며 후손들의 축하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였다.

화룡점정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다르고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행사후 함께 나눈 한 그릇의 잔치 국수엔 어떤 상징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이, 때론 각 모임에서 감사하고 축하할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강단 위의 꽃을 대신하여 모여진 정성이 오늘 차세대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 20명에게 장학금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선배들의 모범적인 섬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차세대들에겐 크고 비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한 비젼이 있기 때문이다. 훗날 이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변함없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안다.

이어진 순서를 통하여 우린 모두 말을 잃었다. 그저 놀라운과 감격에 곡이 끝날때 마다 힘찬 박수로 대신 하였다. 헤리티지 콰이어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완성되지 않은 그림에 한 점을 찍음으로 그 그림을 완성한 날 인듯 싶다. 다음 찬양이 벌써 기대가 된다. 이처럼 차세대를 위한 기도와 기대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돌아오니 사실 하나님은 더 기쁘실 테지만 이를 지켜보는 우리의 감동과 전율도 환상적이다. 선진들과 후대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잊지 않고 가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심은 반드시 퀸즈 장로교회에 함께 하실 것이다. 벽돌 한장 한장을 쌓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수 없이 끓어온 기도의 무릎을 기억하시며 주의 전에 쏟은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세대를 들어 크게 써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뭣~이 중헌지 알기에 꽃이나 기념품, 이런 것들은 문제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군사로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퀸장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가는 동안 45주년도, 그 이후도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일들만 계속될 것을 믿으며 Happy birthday 퀸장!

친근한 대중문화인 가족영화를 통해서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찾기.
지경을 넓혀 대중문화 속으로 풍덩! 친근한 대중문화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수상자 답사

저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히는 일에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rlie Kim - QPEM 대학부

먼저 늘 저에게 복주시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와 많은 학생들에게 오늘의 영예를 있게 해주신 김성국 담임 목사님과 장학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이런 좋은 기회를 갖도록 도우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을 하든 한결같이 격려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의 제가 되기까지 저를 기르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배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배웠으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배웠습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의 상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6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빠듯한 마지막 대학생활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것입니다. 맨하탄을 오가는 교통비와 수업에 필요한 책값으로 쓰여지겠지요. 일을 좀 덜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기도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QPEM대학부와 교회를 더 잘 섬기는데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또 고등부와 QPEM대학부가 함께 하는 사역과 모임에도 필요한 힘을 더 싣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내 삶에 더 큰 부분으로 자리잡으시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상을 받으며 다음 세대를 도울 기대에 가슴 벅찹니다. 이런 기회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움과 격려라고 해도 학생들에게는 그 몇 배의 힘이 됩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든든히 돕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장학금을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장학생들이 저와 같이 감사한 마음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신 장학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쓸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감상문

Evan Almighty

Charis Choi - 5th Grade

If God comes to me and tells me to build an ark I would be very shocked and deny it. But if God continues to say that I have to, I will try my best but most likely I would stop building the ark within a couple of days. But I know that God is going to do things to make me do what he wants me to do just like how he made Evan wear the robe and God made Evan have hair that would keep on growing because Evan would not do what God wants him to do (build the ark). If he makes me do the ark, I will.

So I do not have to face the punishments that God would make me do. I am not sure if the events of the Bible can still happen today but my opinion and thinking is no because not lots of people know God or follow God. The events in the Bible were specially made by God and when God makes something, he needs a special person to take care of the creation. God will choose someone responsible, some one that will obey him and someone that God looks after just like Evan. God chose Evan because he wanted to change the world just like how God wanted to change people to believe in him. That is why God chose Evan and God needs someone to take care of the ark like Evan.

God tested Evan because he would not do what God told him to do. And since God knows everything he knows what Evan does. Now that I have watched the movie I learned that you should not be ashamed to be a child of God because everyone is God's child you should not be embarrassed to be a Christian because Christians go to heaven if you believe in him. I also learned that you should always do what God wants you to do because if you do what God says then you will become a better Christian. This is what I have learned from watching the movie Evan Almighty.

영화 감상문

Letters to God

Chelsea Lee - 7th Grade

The movie Letters to God is a story about a boy named Tyler who gets a severe brain tumor, which led up to him getting cancer. Ever since he suffered from the disease, he started writing letters to God and explained it by saying it was like texting his best friend. He faced many hard challenges, but always reminded himself to be forgiving and grateful because he knew that's what God would do. When he got hospitalized again, his mother started losing hope, and lost all of her faith in God, believing that God wouldn't help them. People in the movie encouraged his mother that everything would be alright, and that God had a plan for everyone. Even though at the end of the movie Tyler passed away, his mother knew he would be safe in heaven with God, and another character named Brady said how God couldn't wait to see him.

Brady is a man with an emotional backstory. He got divorced from his wife, and lost custody of his son. When he became Tyler's mailman, he got Tyler's letters and delivered them to Tyler's church. The pastor at the church said that God put the letters in his hands for a reason. Brady ended up getting really close to Tyler, and was one of the people who encouraged him that everything would be alright when he was passing away. After he met Tyler, his life took a turn. He started off as not knowing God, and ended up with much faith in him. Tyler had a big impact on his life because Brady thought of him as his son. Since he couldn't give his biological son a great childhood, he tried to give Tyler a great one by encouraging him in everything he could, and also caring for his mother when she was worrying about Tyler.

Tyler's disease also had a big effect on his family. It caused his mother to lose her faith, and even his brother become jealous of all the attention he was receiving. However, eventually, with God's guidance, they were able to keep their faith in God.

Letters to God was a very spiritual movie and there were many parts where everyone could tell that God was there - one example was when Sam (Tyler's friend) gave Tyler bracelets with the verse John 3:16 on it. Brady decided to deliver Tyler's letters to all the people he wrote about, and after his neighbors and peers read them, it inspired them to write letters as well. I believe that God was guiding Brady when he decided to deliver them. Even the kid who bullied Tyler decided to write a letter to God asking for forgiveness.

Another great character in the movie was Sam. Sam was a great friend to Tyler and when he was getting bullied, she stood up for him. Her grandfather helped Tyler build up his self-esteem by saying that he was "God's Warrior" and that Sam was "The Peacemaker". Since Tyler's eyebrows were practically gone, her grandfather even drew some on for him! Although Tyler got in trouble a few times because of Sam's actions, he always forgave her. She always made sure to visit Tyler when he was in the hospital, and at one point she brought in the kid who once bullied Tyler, because she believed that God forgave him.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in the movie was Tyler's grandmother. She was very helpful when Tyler's mother lost her faith, because she helped her build her faith back up. When Tyler's brother was worrying that Tyler wouldn't get better, they prayed together so that he would.

This movie was based on forgiveness, as well as trust and love in God. I personally as a Christian really liked this movie and found it very inspiring as well. I think that Tyler's story will motivate/encourage many Christians who watched this movie to maybe even write letters to God. It definitely motivated me by realizing that life is very short, so I should use it by worshipping and following God. Tyler changed the lives of many people including his family and Brady, and I want to be like him even when I'm in times of trouble (like he was struggling with cancer) I can still have a way of praising God (like he wrote his letters to God).

I still cannot believe how significant Tyler lived his life! He lived a life as a true Christian, and especially for his age, that could be very hard. The thing that made this movie even sadder was that it was based on a true story. In conclusion, Letters to God was a very encouraging movie that teaches us about faith, while I am hoping that I can also be a warrior of God.

장학금 수상자 최채린, 정하은, Joshua Nam, 이예슬, 조하민, Athena Choi, 임종수, 심영준, 권민지, Stephen Lee, Noah Kim, Grace Choi, 엘리자벳 송, 조은빈, 이신권, 조희주, Angela Cho, Charlie Kim, 고유진, 신예지, Esther Oh, 김선의, 런대인(CM), 이주혁, 고은비, 정현수, 송수진, 조민주

교육부- 초등부 겨울 수련회

The Lord's Prayer

차윤일 집사 - 초등부 부장

오랫동안 기다려온 초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18일(주일)부터 2월20일(화)까지 2박3일 동안 Steve Yoon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The Lord's Prayer'(마6:9-13)를 주제로 Pensylvania - Spruce Lake Retreat Center에서 있었습니다. 30여명의 초등부 학생들과 10명의 교사들이 함께한 이번 수련회는 때마침 시작된 사순절에 맞추어 기도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총 다섯번에 걸쳐 ' 1.하늘에 계신 아버지 경외 2.하나님의 나라와 뜻 3.일용할 양식 4.용서함과 용서받음 5.시험 그리고 구원 ' 이라는 제목으로 윤전도사님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기도에 대해 너무나도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팀별로 주기도문과 말씀 암송을 하고, 여러가지 기발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며, 이번 수련회의 주제인 주기도문을 각자 써서 예쁘게 장식한 액자에 넣어 추억어린 주기도문 액자도 만들었습니다. 둘째날 밤에 주기도문을 주제로 팀별로 연극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협력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경배와 찬양, 피아노 반주, 게임, Art & Creft 등 수련회 모든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캠프장으로 섬긴 선생님, 김재형목사님과 사모님의 든든한 기도와 사랑으로 수련회가 기쁨과 은혜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악연주를 통해 믿음을 키워가는 Ainos

Ainos 부장 – 최효진 권사

Ainos는 헬라어로 ‘ 찬양’ 이라는 뜻입니다. 2011년 김미언 집사님의 인도하에 20여명의 학생들이 Youth Orchestra로 출발해서 2015년 Ainos Youth Orchestra 로 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11회째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중고등부 28명의 Ainos 1, 초등부 21명의 Ainos 2, 32여명의 Ainos 기초반의 학생을 포함한 총 80여명의 학생들과 10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Ainos 는 기회가 되는대로 교회 예배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음악을 연습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며 수준 높은 연주곡을 통해서 실력도 향상되어 갈수 있도록 다양한 클래식도 연주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 Ainos 2아이들이 누구나에게나 친숙한 ‘도레미송’과,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향땅’, 은혜로운 찬송가 ‘어둠밤 쉬되리니’ 를 연주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Ainos 1에서 하이든의 첼로협주곡을 연주한 소윤종 학생과 모짜르트의 바순협주곡을 연주한 김민수 학생이 보여준 것처럼 수준높은 협연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불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매주일 오후, 힘든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과 연습에 임하며 음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품어주고, 클래식 음악에 심취하는 기회를 갖으며, 또한 아름다운 고전음악을 느낄수 있는 시간을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고전 음악의 배경은 기독교입니다.

연주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력 향상도 확인하며 포토폴리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 안과 밖에서 얼마든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음악에만 한정된것이 아니라 더 넓게 음악의 폭을 넓히며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교회뿐 아니라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갈때 클래식 음악과 교회 음악의 적절한 균형은 더 효과적으로, 부담없이 음악을 통해 군중들의 마음을 열게하는 전도의 도구가 될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많이 세울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이들의 실력과 교회 참여도, 신앙이 더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5월 정기 연주회와 8월 여름 음악 캠프, 11월 가을 연주회 이외에도 지역 사회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음악을 통해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th GOD!

Daniel Anbinder – Violin

My name is Daniel Anbinder and I’m currently 11 years old and I’m in 6th grade, I have been in AINOS for 2 years. I am currently in AINOS 1, and I took part in 11th AINOS concert, it has been a great experience to play the violin with my friends in one orchestra. I have been playing the violin for about 2 1/2 or maybe 3 years.

I came to KAPCQ about 2 years ago a couple of months after the Russian Ministry started at our Church. I never went to Church before I joined KAPCQ 2 years ago and I really feel KAPCQ brought me closer to God then ever before in my life I feel his presence everywhere and I want to thank God for that.

I joined AINOS 2 when I had maybe 10 months of experience on the violin, and to be honest at that time I was really bad I couldn’t play any of the songs that our teachers gave us. I tried and tried in the end nothing came out, but something I learned is during worship it doesn’t matter if you play it right or not, it matters if the worship comes from your heart.

I went to the Staten Island Conservatory of Music and there God provided me help the teachers there helped me with the music provided to me from AINOS and I didn’t realize it was a blessing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really was a blessing from God, being there gave me a boost and I got to understand music even more. During the time period of these 2 years I felt I was getting better and I started playing more advanced music I never thought I would play in an orchestra. Not that long ago I have joined AINOS 1, here I got a totally different experience I was used to music that I thought was easy, but in AINOS 1 it’s a different story.

The first time the new 6th graders including me, came to AINOS 1 they gave us new music and when I saw the music I said “Dear God have mercy” I had no idea how I would play this music. It was like the sheet’s of music were a big brick wall in front of me that I’m trying to pass. Now, since I left 5th grade I left the Staten Island Conservatory, and I basically had no help earthly help, but I knew I had God.

The musical pieces that we played for the concert where the first pieces of music I played in AINOS 1. At first it was really hard, I didn’t want to practice, because in my head I had that voice telling me “your not going to play well, even if you try nothing will work out” at this point I was forced to practice. I honestly really, really want to thank my teachers from AINOS because without them I would not be able to play at the concert.

My AINOS teachers where with me every step of the way to perfecting the music, but most importantly God was with me. It said in Revelation 3:8 “I know your deeds. See,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that no one can shut.” God says here that he has placed in front of us an open door that no one, not any person a Pastor, a Deacon, a non-believer no one can shut that door. People look at this “door” as the gates to the Kingdom of Heaven but I look at it as when I joined AINOS God opened a door for me a door to play the violin and to worship him, but the voices in my head that came from Satan tried to close that door, but Satan is nothing and he has not stopped me.

I always like to compare real life situations with what the Bible tells us, in my opinion Revelation 3:8 is a perfect verse to describe my path to performing at the 11th AINOS concert. I really want to thank all the AINOS teachers that helped me at our practices and made me better at the violin so that I can praise God. I also really want to thank God himself that he gave me an opportunity to come to KAPCQ and to join AINOS. Like I said in the very beginning, playing at the 11th AINOS concert was a great experience and I feel like this concert has made me better at the violin.

Thank you! God bless!

Praise God’ s name through the gift of music

Timothy Kim – Bassoon

The Ainos Youth Orchestra ha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that has greatly enhanced my life both in church and out of church. A performance and a practice a week has had a dramatic change and effect on my lif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the youth orchestra has provided me is a way to praise God’s name through the gift of music. I’ve been able to play during services, concerts, etc., all in God’s name. I’ve also learned a lot of life lessons through the Ainos Youth Orchestra. Getting home later and staying at church and in New York for a long time has definitely been a challenge as considering I live in Connecticut. It’s difficult because I couldn’t really spend any part of Sunday hanging out with my friends or have a lot of time to do all my homework because a considerable part of my day is spent out of town. However, staying for rehearsal has definitely taught me a lot including perseverance and really opened my eyes. Being a teenager and seeing your friends all together has been tough, but praising God’s name and doing something that will benefit me forever has really been worth it. I’m truly blessed to have this opportunity and would like to thank God, my parents, and the teachers who have guided me through my life in youth orchestra.

My First Ainos Concert

Emily Sohn – Violin

I’ve been in Ainos since last year. Playing the violin gave me the opportunity praise God with my instrument. Before I started the violin, I was only playing the piano. On the piano, the only type of music I was learning was classical, but now that I play the violin I got to learn praise song like `Work for the night is coming’. Learning different pieces of music in orchestra was fun and a lot of work at the same time. The last concert I performed was when I was in the beginner’s group. We played easy songs, which weren’t much pressure, but the concert I had this time was more exiting. Even though I was nervous, I knew that other students were nervous as well.

I knew that I wasn’t alone. We took a lot of time to practice these pieces and worked together. If one person made a mistake we would all have to go back and start again. During the time I learned that orchestra is about harmonizing together and putting the music into something wonderful. Along with learning music, we also memorized bible verses every week before starting the lesson. My favorite verse was John 3:16. On the concert day, I took my eco bag that had print of my favorite verse. It gave me more confidence by reminding me that God loves me so much. During my lifetime, I hope to praise God no matter what instruments I play.

11th Ainos Concert

성경대로 배우고, 삶의 지혜를 만나다

1월 7일 (주) , 12주 과정으로 개강한 QBC 가 절반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기존의 성경공부와는 다르게 연령대별로 주제 강의를 들으며 토론과 나눔의 시간들을 갖게 됨으로 성경적 지식만을 쌓아가는 공부가 아닌 깊은 묵상과 ,탐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더욱 진지하게 말씀을 만나며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강의마다 열정을 다하는 강사들과 배움의 열기를 더하는 학생들로 뜨거운 강의실 모습들을 아가페에 담아서 함께 나눕니다.

QBC 를 통해 성경적 가정으로 올바로 세워질 God' s Will

God's Will 선교회 이지선집사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5-17)

늘 새해가 되면 올해는 작년과 달리 꼭 무언가는 하나 이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거창하고 엄청난 목표를 정해 성과를 내고자 욕심 부릴 나이는 지났는지라, 소소하게나마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고픈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20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전해진 QBC 개강소식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유년기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에 적어도 30년 가까이 접해온 성경이지만, 체계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는 느낌에서 오는 설렘이 저를 QBC로 이끌었습니다.

모임 첫 날. 유아부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보였습니다. 30대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선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칼리지(College)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시작된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뭔가 '다를까?'라는 의구심도 품었습니다. 깔끔하게 디자인해 분철한 교재가 배포됐고, 저는 QBC를 준비하고 기획한 손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갓즈윌(God's Will) 선교회는 다른 선교회와 달리 올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4개로 나뉘어있던 선교회를 하나로 묶었는데, QBC 교재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한 이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학기 QBC를 통해, 갓즈윌 선교회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길 바라신 겁니다.

강의가 시작된 1월부터 4주 동안,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잠언, 시편, 히브리서 곳곳의 말씀을 찾아주시며 성격적 '가정'의 정의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크리스천 가정들의 아픔을 돌아봤고, 탕자의 가정을 통해 '형제의 아픔과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 가정들의 진정한 회복을 말하셨습니다. 강의는 단순한 말씀 전달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전달 위주였다면 사실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강의는 선교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 발표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나이끼리 묶어 또래가 느끼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그룹 연구 발표를 통해,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선교회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개강 6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매 주 강의 진행 방식이 달랐고, 강의 진행자도 바뀌었으며, 나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얼굴들도 달랐습니다. 이번 학기의 정확히 절반이 지났지만, 남은 6주의 강의가 기다려지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퀸즈 장로교회에 등록한지 올해로 8년째입니다. 부끄럽지만 아직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은 마치지 못했습니다. QBC를 통한 성경적 배움의 호기심이 또 다른 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혹 아직 QBC에 함께하는 게 망설여지는 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도전할 것을 권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40대 선교회 QBC

바울선교회 손정호집사

QBC가 시작되던 2018년 1월 7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뀐 주일 일정이 익숙하지 않은 듯 교회 계단과 복도마다 성도님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도착한 맨꼭대기 4층 중등부실, 40대 선교회가 김재형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QBC 첫날의 풍경은 학교 다닐때 개강 첫날을 떠올리게 하며 잠깐 학생된 기분을 들게 하였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였다. 성경의 시작이라는 것보다 창조에 생각을 머물게 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하셨다. 예배 때 선포하시는 설교와 다르게 수업 중간 중간 화제를 던지는 목사님은 "하나님 왜요?" 라며 화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본인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시며 서로 교제하게 하셨다.

학생들처럼 40대 성도들은 어색함보다는 시끌벅적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서로의 간증을 나누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노아와 아들들,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와 자신의 의대로 따를 때의 상반된 결과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보여 주시는 목사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는 순간 주인되려는 욕심과 자기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여 주시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셨다. 인간의 실수에도...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끝이라고 할 때도...절대로 놓지 않으시며, 때려서라도...약속하신 대로 끝까지...우리를 기다리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 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죽게하셨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세상은 40대를 흔들리지 않는 불혹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않고서는 여전히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연약한 40대임을 고백하며,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굳건히 새겨 본다. 창조주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더욱 깊이 배울수 있기를 기도한다.

성경 속 인물을 통해 50대에 새롭게 만나는 '아부지'

베드로선교회 정해성 집사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17년전 개봉된 영화 [친구]에서 불량학생(유오성)의 볼을 꼬집어 잡고 선생님(김광규)이 묻는 장면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회자되는 명대사이다. 나는 이제 겨우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다. 후회없이 즐기며 살자던 2,30대가 덧없이 지나갔고, 40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50대에 들어서야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알아가는 중이다. 퀸장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4년전 제자훈련을 받던 때이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정립이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벗겨도 벗겨도 새롭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실상은 양파껍질과 같다. 겨우 조금 아는 것 같다가도 이내 발견하는 무지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깊어지는 오묘하고 위대하신 아버지의 실상 앞에 아직도 여전히 한없이 작은 내 모습을 바라본다.

50대 선교회의 QBC는 배인구 전도사님을 강사로 성경의 인물별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첫 주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사사시대의 룻, 한나로 이어지고 있다. 영상과 지도, 요약정리 등 배전도사님의 열성적인 자료준비와 열강으로 매 강의가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고, 50대 선교회원들의 참여는 뜨겁고 적극적이다. 강의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크린의 자막 내용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는 선교회원들의 열성도 인상 깊다. 지루하지 않게 등장하는 배전도사님의 유머도 즐겁다, 2018년에 접하게 된 QBC는 퀸장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와 같은 기쁨과 설레임이 있다. 내게 다가오는 QBC의 의미는 'RESPONSIBILITY"이다. 'response'는 반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ability'는 능력이란 의미를 갖는다.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들의 순종을 배우고,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선택받은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남을 보게된다. 실재한 역사 속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 머지않은 은퇴를 고민하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50대의 고민은 남다르다. 90세 정도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은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재능)가 무르익어 그 농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50대이다.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한껏 발휘하며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약 4:17). QBC를 통해, 성경 속에 만나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또다른 질문을 접한다.

"니는 느그 아부지한테 뭐하노?"

QBC를 향한 기대와 60대 학생들의 열정'

루디아선교회 정혜경 권사

새해가 되면 글자 그대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갖게 된다.

오랫동안 주일 1,2,3,4부 예배와 오후예배에 익숙해있던 우리 퀸장 가족들에게 무언가 다른 새해의 새 모습- 바로 연령별로 배우는 Queenjang Bible College(QBC)가 새로 시작된 것이다.

첫시간에 60대 학생들은 지하 찬양대준비실에 모였는데 예상외로 많이 모여 늦게온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선채로 오리엔테이션에 임했다. 기대 가운데 소개된 강사는 30대의 신선한 손요한전도사님이었다. 이번 겨울 학기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배우는데 수업 소요시간-50분, 토론 소요시간-5,10분,예습 소요시간-90분,숙제 소요시간-30분 그래서 총 소요시간이 180분. 이정도면 그리 만만치 않은 과정인듯 하다. 여기 저기서 작은 한숨이 새어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수업이 시작되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고등부실로 강의실을 옮겨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남자 회원들은 먼저 와서 책상을 배치해 놓고, 서로들 앞자리에 앉으려고 부지런히 강의실로 찾아오는 60대 학생들. 발을 수술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매주 제일 앞자리에 와서 듣는 학생,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끗 세우고 경청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숙제는 성경을 미리 읽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4면이상되는 곳에 가득한 성경귀절을 써오는 것이며, 거기에 매주 주제에 관련된 1페이지 정도의 간증을 적어오는 것이다. 이쯤되면 숙제 소요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추가되는 셈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평없이 열심히 숙제와 예습을 해온다.

세상적으로 보면 산전 수전 다 겪은 나이지만 늙었다는 단어가 무색한 우리 60대 선교회원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젊은 전도사님의 열강으로 강의실은 오후 햇살처럼 늘 뜨겁다.

QBC를 통하여 온교우들이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소원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퀸장 70대, 80대

아브라함선교회 허경화 장로

퀸장 바이블 칼리지를 통하여 70,80대의 선교회원들이 '사도행전' 을 배우고 있다. 강사 송요한목사님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교재로 만들고, 또 강의 때마다 영상을 통하여 흥미진지하게 강의를 하신다. 몸과 마음이 쇠하고 노약한 세대이지만 강의 시간만 되면, 빈자리가 없이 가득히 모여서 정신을 집중하고 눈을 반짝이며 배우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성경 지식에 대하여 목말라 있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설립과 또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받게 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금년에도 사순절 기도회에 온 교회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증거되는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사람이 말씀에 붙들려 살며 가정마다 찬송과 기도가 항상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바램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바울, 베드로, 디모데,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많이 배출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70,80 대의 선교회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담임목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어 드리고, 젊은 일꾼들을 돕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행 1:8)

이승조 집사

Seung Cho Lee, PhD
Research Specialist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NY

연재를 시작하며

아가페에 '생명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에 대한 소개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연재하게 될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파브르 곤충기를 즐겨 읽으며 곤충을 잡으러 다니거나 동물 및 생태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찾아서 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자 부모님께서는 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기초 학문 분야인 생물학을 전공하도록 격려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및 석사 졸업 후 가정적인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에서 식물 분자 생물학 박사를 마치고 뉴욕 롱아일랜드 소재의 연구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무의식적으로 마음 속에 수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주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창조의 내용과 생물학적 연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화론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비밀을 밝혀나가는 연구를 계속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일까?" 에 대한 고민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연구의 깊이가 한층 깊어지면서 저는 이 불일치가 실제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발견할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사실을 주변에 나누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제 1회 생명 창조

세밀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생명 현상

소개해드린 것 처럼 저는 현재 롱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12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생물학의 메카라고 불리우며,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거쳐간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주변 경관도 좋고 연구소 맞은편 도서관 및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연구소에는 50개 정도의 연구팀이 뇌과학, 암 연구, 분자 생물학 및 후성 유전학 등 생물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을 연구하고 질병 치료에 적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백명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매우 경쟁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주변에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물학의 한 분야인 후성 유전학(epigenetics)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후성 유전은 DNA가 조절되는 현상으로 태아의 발달, 암 및 뇌의 발달과 노화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일부는 무작위적 (random)인 화학반응이 유기물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만들고 이는 세포의 발생과 여러 동, 식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조차 모든 생명체가 모두 random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소히 여기는 대장균, 유산균 부터 인간의 세포의 있는 DNA에는 매우 정교한 유전학적 법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창조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분명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한편 물리나 화학법칙은 인류가 많이 정립을 해왔지만 생명에 대한 탐구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암이 정확히 어떻게 발병 되는지 등의 내용에는 수많은 연구비를 투입해도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 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법칙이 발견되면 될 수록 창조에 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30)' 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놀라운 계획 속에 창조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세밀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생명 현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고민하는 사소한 문제도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생명을 만들어 내는 에너지와 물질의 조합과 순환

전통 창조론과 지구의 나이

창조론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면 미국 기독교 교계에서 다뤄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관점은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책 참조: Four views on creation evolution and intelligent design). 더 단순하게 나누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1)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창조의 시기 혹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전으로 보는 관점과, 2) 창조를 인정하나 지질학과 생물학을 근거로 지구 탄생을 46억년 전이라는 사실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입니다. 정통 창조론에서는 성경을 토대로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통해 아담과 아브라함의 시간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과학계가 바라보는 현 지구의 나이는 46억년으로 지구와 운석의 우

라늄-납 동위원소 측정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인류 화석의 나이는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분석함으로서 추정되었습니다. 유기물을 이루는 C-12, C-13, C-14 등 탄소 중 방사성을 띠는 C-14의 반감기를 통해서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DNA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인데 DNA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화학물질로 유전 정보가 표현 됩니다adenine (A), cytosine (C), guanine (G), thymine (T). 마치 26자의 알파벳 조합이 의미를 만들어 내듯 (apple = 사과; boy = 소년), 4가지 DNA의 화학 글자들이 인간의 유전 정보를 30억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세포 동물은 수정란 혹은 배아라고 하는1개의 세포가 수 없이 분열되어서 성체가 되는데 세포 분열 중 DNA가 2배로 복제되어야 합니다. 이 때 DNA를 만들어 내는 단백질 효소가 간혹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한 가족의 가계도에서 오는 DNA 샘플과 각기 다른 인종의 DNA 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속도를 계산하면 인류의 탄생 시기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보고 있는 최초 인류의 탄생은 20만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나 DNA 돌연변이 속도도 근래에 얻어진 샘플에 근거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성경의 창조 순서

어떤 창조론에 대한 관점이던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쓰여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16) 와 같이 성경을 믿고 성경에 쓰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구와 생명 탄생의 실질적 나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순서는 매우 논리적 입니다. 빛 -> 바다 (물)와 땅 -> 식물 -> 동물 -> 사람. 물과 땅에 있는 여러가지 무기질들은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빛인 에너지는 생명현상이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생물과 식물은 무기물질을 유기물질로 바꾸고 이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물질로 만들어 냅니다. 초식 동물은 식물을 먹고 번식하며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먹고 번식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닮아 물건이나 생각을 만들어 내는 창의력이 있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 발생 순서를 큰 맥락에서 생각하면 성경의 창조론과 진화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나 더 거슬러 가서 미생물이라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수만년을 살면서 진화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화석에 근거한 종의 발생과 진화에 대한 이론은 추측입니다. 반면 제가 과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신은 분명 인간과 동물은 신체 구조적으로 유사점이 있고 유전자 DNA서열과 유전 법칙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생명의 설계도이자 언어인 DNA로 쓰여있고 단백질 효소라는 세포 내 도구를 만들어 냅니다. 이 단백질 효소는 세포를 만들어 내고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장균은 약 4,300개의 유전자가 있고 인간에는 약 30,000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들간의 상호 작용으로 더 많은 생명현상의 조합을 만들어 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단지 7배가 아닌 수천배 수만배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류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급격히 발달 된 지능이 있고 그로 인한 창의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생물학을 통해 본 생명의 법칙과, 이를 인류가 어떻게 이용하여 왔는지 다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다루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과 '선악과'는 무엇인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

교회 건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교역자들이 교회 주차장에 모여 정진규 집사님의 시범아래 소화기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소화기의 종류 :
1) 지하 식당 주변에 있는 소화기는 기름기 있는 불을 끄는 소화기
2) 각 층의 교실, 사무실에 종이나 나무를 끄는 분말 소화기
3) 전기 누전등에 사용하는 CO2 소화기

소화기 작동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안전핀을 뽑고 호스의 출구를 화제가 난 곳을 향하도록 조준하고 손잡이를 눌러주면 됩니다.
교회 안의 소화기는 각 층마다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해 두시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깨달음, 그리고 순종

전성호 전도사를 만나다

인터뷰: 남형욱 장로

동부개혁신학교에서 신학 목회학 석사과정에 계신 전성호 장로님께서 2018년 1월 청년선교부담당 인턴전도사로 임명받으시고 교역자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시무장로은퇴를 앞둔 시점에 돌연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장로님을 청년선교위원회 위원장 남형욱 장로님이 만나뵈었습니다.

지난 2월10일 토요일은 뉴저지 은혜양로원으로 청년선교위원회가 두달에 한번씩 가는 정기 위로방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양로원방문 몇 시간전에 청년선교부 담당사역자로 임명을 받으신 전성호전도사님 내외분과 식사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이 익숙지 않아서 장로님, 혹은 전도사님으로 편하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퀸장에 처음 등록한 저를 위해서 뉴저지에서 2년 동안이나 매 주일마다 라이드를 해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장로' 라는 직분으로, 장로님은 '전도사' 라는 직분으로 만나 함께 사역을 나가게 되니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신년 1월, 수요예배에 첫 말씀을 전하신 후 우리 교인들이 전성호 전도사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아진 듯 합니다.

20년간 뉴저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장로님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 교인들이 궁금해 하실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빈 그릇으로 나설 수 없는 길, 말씀을 담아

가족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광인 권사와 정일, 제인. 두 남매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고든 컬리지에서 신학을 마친후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현재 LA 산호세에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로드아일랜드 아트스쿨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맨하탄에서 CK, TOMMY HILFIGER 등의 브랜드를 위해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의 신실한 섬김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보아왔지만 교회에서의 모습이외에 장로님이 전에 무엇을 하셨었는지 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시기전 전도사님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학번으로 전기공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였고 학교를 졸업 한 후에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바로 직장을 잡지 않고 군대를 먼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대후 첫 직장으로 한국전력 ,포항제철 ,현대를 지원하였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합격이 되었고, 지금같아서는 한국전력이나 포항제철을 선택하였겠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건설경기가 좋아지던 시점이라 건설쪽으로 유명한 현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입사 후 1973년 제1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참여등을 통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에 계신 동안 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1975년 중동 건설이 한창 붐을 이룰 당시, 2년간 사우디아라비아 현대지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2년 근무를 마친후 한국에 잠시 돌아와 있을 때에 집안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닌다고 어른들의 성화가 계셔서,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제직중이던 집사람을 중매로 만나 1978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혼 후에는 한국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근무를 하셨었는지요? 해외지사근무 시절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결혼을 하자마자 1979년 영국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당시 현대가 건설로 크게 성장하던 시기라서 가족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발령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국으로 처음 발령 났을때 신혼이라고 배려를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 집사람을 현지로 보내줄테니 우선 먼저 가서 있으라고 설득하였고 ,이에 상사의 말만 믿고 영국으로 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몰래 집사람을 영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징계 차원에서 1980년 독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일동 웃음)

한국에서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못 다녀온 터라 독일에서의 생활이 신혼여행을 대신하게 되었고 좋은 자연환경에서 직장동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안 정주영 회장을 모시고 88'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 활동도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요?

당시 미국에서는 가족초청이민이 많았습니다. 해외 근무를 통해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터였고 미국에 먼저 이민 와 있던 가족들의 초청이 있어서 새로움에 대한 도전의식으로 미국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퀸장에 등록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미국에 오기 전에 집사람은 유년시절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었고 이후 신앙서적을 읽으며 신앙에 대한 사고와 믿음의 씨앗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였었습니다.

미국 이민 초기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추운 날씨에 아기를 임신한 집사람이 교회를 걸어서 오가는 것이 안쓰러워 당시에 샌포트애비뉴상의 루터란 교회를 빌려 쓰던 퀸장까지 집사람을 차로 데려다 주고 예배가 끝날때까지 차안에서 기다리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차에 있기가 어려워 교회안으로 첫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생애 첫 설교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퀸장에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셨어도 80년대 초반 한국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는것이 쉽지 않았을 듯 합니다. 미국의 이민 생활중 어려우셨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1982년 뉴저지 호보겐에서 하드웨어 스토어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987년 집사람과 아이들이 한국에 방문해있는 동안에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화재로 집과 집에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이난 당일, 구호 단체에서 잡아준 임시숙소에서 혼자 밤에 누워있던 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일성수를 꼭 지키기 위해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날이 주일이였지만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교회에 가는 일이 평탄치 않았는데 비를 맞으며 아이들 손을 붙들고 교회로 들어서는 순간 '떡 권사님' 으로 알려진 권사님 한분이 손을 잡아 주시며 젊은 사람들이 기특하다고 등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나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이 날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날 중의 하루입니다.

사업도 자리를 잡으셨고 장로로서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장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으신 시점에서 '신학' 이라는 쉽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몇년전 캄보디아의 우리 선교지에 사역자가 공석으로 있을때 장로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가서 우선 선교지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정이 급하니 준비가 없더라도 우선 현장에 가서, 선교지를 지키고 보자는 마음이 앞섰는데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신학을 하고 가야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후 아무런 결단은 못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를 하던 가운데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던 중 집사람의 꿈을 통해 예수님이 빈 그릇을 보여주시며 선교지를 향한 준비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셨고, 빈 그릇을 채우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준비하여 선교지를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신학교 입학을 결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신학을 시작하신지 벌써 2년반이 지났습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공부를 한 학기를 남겨 놓았고 올해 목사준비생 고시, 총회 고시, 노회 고시. 총 세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선교사로서의 필요한 신학공부의 일정을 마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부를 마치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세째주 수요예배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듯 한데요. 강단에서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잠시 울컥하시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저도 긴장을 많이 하고 강단에 올랐지만 우리 교인들이 더 긴장을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웃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도사로서 처음 전하는 말씀도 자연히 선교사의 사명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한 부분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담대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설교 전에 교회를 위해 평생을 함께 섬겨온 장로님들의 헌신된 찬양의 모습이 말씀 중에 떠올라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었나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신학을 한다', '선교지를 나간다' 이런 수식어 때문에 저희 부부를 아주 특별하게 보아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대단하게 무엇을 준비하거나 어렵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로써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찾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다 장성해 각자의 길에서 자리를 잡았고, 사업도 은퇴를 준비할 수 있게 잘 정리가 되던 가운데 , " 선교지로 가면 좀 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비젼을 보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하다보니 신학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에 인턴 전도사로 발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대단하게 준비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의 사역도 거창하게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를 마치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서 2년이던 3년이던 건강이 허락하고 저희 부부가 짐이 되지 않고 현지인들을 위해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발걸음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는 단순한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교지를 나가기 전까지 또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도 기도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 20년 가까이 함께 교회를 오고 가며 장로님과 나눈 수많은 대화가 제게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제가 장로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지금 하고 계신 사역과 계획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제게 또 한번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두분이 걸어오신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또 앞으로 말씀과 복음을 들고 가실 길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후배로, 후배 장로되가 되어 장로님께서 가시는 길을 저도 언제인가는 따라가도록 노력하며 계속 두분을 위해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며 받는 또 다른 사랑과 은혜

정진웅 청년

작년부터 시작한 양로원 사역을 올해에도 계속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뉴저지에 위치해서 왕복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지지 덕분에 꾸준히 2개월마다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리고 양로원을 담당해 주시는 권사님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실때마다 어디서 왔는지, 몇살인지 물어보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청년선교부위원 장로님의 도움으로 교회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 기뻤습니다. 이번 방문 때에는 허영미권사님께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으시고 부채춤과 북으로 공연을 하시니 어르신들이 더욱 즐거워하시며 박수도 치시고 춤도 같이 따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색소폰 연주와 합창 또한 기대해 봅니다.

오인수 목사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하시니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주셨습니다. 말씀후에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며 혹시 예수님을 믿지않는 분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렇게1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운전과 기타로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더욱 많이 봉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겸손히 섬기기 원합니다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

안전 조끼를 입은 차량부 부원들이 교통 안내 지시봉을 손에 들고 힘차게 찬양을 인도하는 차량위원회 헌신예배가 송동율 장로의 사회로 드려졌다. 특별히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의 "처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유지하여 나중된 자가 되기까지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부원들의 모습엔 감사가 넘쳐난다. 21대의 차량이 동원되어 성도님들의 발이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기는 모습 속엔 오랜 경륜의 모습도 나타난다. 45명의 부원들로 한해를 다시 시작한 저들의 빛나는 섬김과 활약은 올 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될 것이다.

메인스트릿에서 외친 '예수 사랑하심은'

이동훈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나임 경배와 찬양팀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는 이동훈 집사입니다. 지난 2월 17일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설 퍼레이드에 저희 교회가 참여하게 되어서 제가 느낀 것을 나누려 합니다.
플러싱은 어쩌면 이번 사순절때 저희가 듣는 천로역정 이야기에 나오는 장망성이 상징하는 곳 같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의 쉽지않은 삶의 모습들이 모여있는곳, 특별히 더욱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신분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한 이곳은 잿더미가 되는 도시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진 이민자들이 모여사는 곳입니다. 자신을 믿거나, 다른 종교, 어메리칸 드림을 믿고서 왔지만, 가야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도는 지친 이들이 잠시라도 삶의 여유를 찾고자 고향의 제일 큰 명절을 상징하는 설 퍼레이드에 나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들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천로역정의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Jesus Loves You' 라고 각 나라 언어로 쓰여진 팻말을 들고서 사랑의 메세지를 가지고 행진하였습니다. 온 언어의 회중들이 함께 'Yes, Jesus loves you! Yes, Jesus loves you!' 라고 찬양을 부르며,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천성에 함께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Jesus Loves You!' '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평소 노방전도 하려 기타를 가지고 메인스트릿으로 나갔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을 여유가 없이 저희를 지나치거나 배척하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한 작년과 제작년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고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번 퍼레이드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예비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어 다른때 보다 몇배 많은 구경꾼들이 저희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복음과 찬양의 메세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는 모르나 기쁨을 가지고 전하고 찬양한 저희들을 보고서 저희 안에 계신 기쁨의 성령님을 본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뵀던 성도님들도 군중 속에 여럿 섞여서 저희들을 보셨을때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며 감사와 위로를 느끼신것 같았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한가운데 울려퍼진 찬양의 함성과 복음의 행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온 부서가 함께 연합하여 나감 역시 큰 기쁨이었습니다. 수십명의 중국어 회중들과, 또 러시아, 큐펨 회중들. 그리고 경배와찬양팀에서 함께 섬긴 우리 청년들이 한마음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얼굴들이 제작년 저희가 처음 퍼레이드를 시작했을때 보았던 얼굴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년 한결같이 섬김에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몇년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군중들 속에서 우리를 봤던 청년들이 그동안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이 되어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찬양으로 섬기며 또 같이 복음을 전한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는 이 행진이 큰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아서 못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내년 퍼레이드에 초대합니다. 꼭 같이 행진합시다. 예수의 깃발을 들고 복음과 찬양을 선포합시다! 장망성의 짐을 진 모두가 천성에 함께 갈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날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모임

해외선교위원회는 2월 10일 해외선교위원장 (정길표장로) 과 임원단,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한어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해외선교계획과 일정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처음 시도해던 중기선교사 파송과 실버사역, 검안사역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모아졌으며 올 여름 단기선교지가 최종 확정됨으로 단기선교일정과 사역내용들이 정리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단들은 2018년 6월부터 시작될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로 힘찬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었다.

2018년 단기 및 중기선교 Schedule

단기 (1주 이상)

	장소	선교사	예상인원	사역 예상 날짜	사역
1	카작스탄	김관웅	6	7/12-7/21	목회자 세미나 신학교 사역
2	온두라스	이동철	10	7/12-7/21	VBS 어린이사역, 의료사역, 안경사역
3	중국	이강웹	12	7/15-7/28	목회자 세미나 신학교 사역
4	캄보디아	이일훈	20	7/23-8/4	VBS 어린이 복음사역, 청년사역, 의료사역 etc
5	엘사비도르	함영진	12	7/21-7/28	VBS 어린이사역, 농장사역, 의료사역
6	케냐	강인웅	12	7/9-7/20	VBS 어린이사역, 찬양사역
7	아리조나	이영호	10	7/20-7/27	VBS 어린이사역, 찬양사역, 청년사역
8	할렘	김영희	50	8/25	노숙자 대상 복음사역, 청소년 대상 찬양사역, Soup & kitchen 사역
	총예상 인원		132		

중기 (1달 이상)

	장소	선교사	예상인원	사역 예상 날짜	사역
1	중국 중기	이강웹	1	본인 schedule	선교사 훈련사역, 영어 사역, 기술사역, 정탐사역
2	캄보디아 중기	이일훈	2	본인 schedule	
3	프랑스	최득신	1-2	본인 schedule	
4	카작스탄	김관웅	1-2	본인 schedule	
5	일본	한승희/노명숙	1-2	본인 schedule	
6	파키스탄	홍함식	1-2	본인 schedule	
7	온두라스	이동철	1-2	본인 schedule	

**날짜는 변동 여부 때나 지원사역 schedule에 의하여 결정

실버 (1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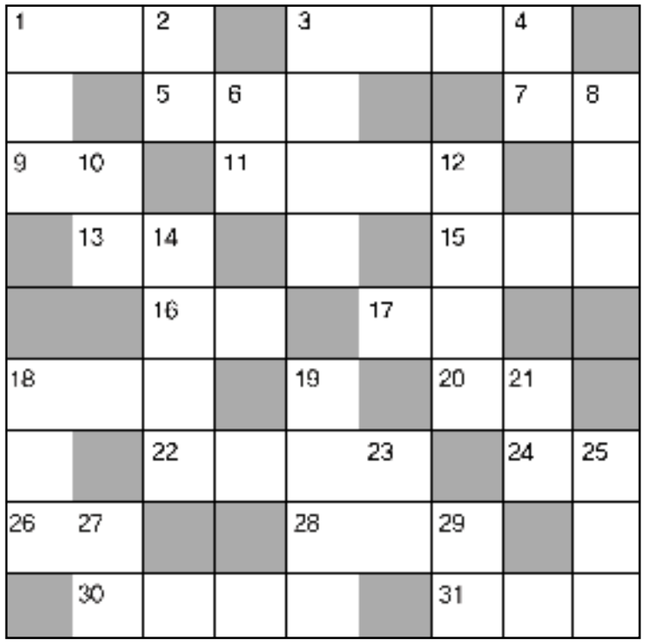
	장소	선교사	예상인원	사역 예상 날짜	사역
1	온두라스	이동철	2-5	본인 schedule	기도사역 (새벽기도, 중보기도, 가정기도 etc) 안경사역
2	캄보디아	이일훈	2-5	본인 schedule	
3	카작스탄	김관웅	2-5	본인 schedule	
4	엘사비도르	함영진	2-5	본인 schedule	

**날짜는 본인 schedule에 의해 결정. 단기팀과 함께할 수 있음

성경공부 하 GO! 퀴즈 풂 GO! 상품 받 GO!

출제 김기호 장로

아가페 408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가로 푸는 열쇠

1. 감독하는 사람 (왕하 22:5)
3. 우리 교회 3월의 표어
5. 주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모범적 기도
7. 썩거나 문드러진 물건이 덩이로 떨어지는 꼴 (국어)
9. 산에 쌓은 성 (민 13:19)
11. 위 아래가 서로 화목하게 지냄 (국어)
13. 장모 (국어)
15.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국어)
16. 아람의 한 왕 (왕하 16:5)
17. 메소보다미아, 갈대아인의 성읍 (창 11:28)
18. 안내, 지도 (영어)
20. 가나안인인 블레셋 사람들의 신으로 농사와 관련되었다 (대상 10:10)
22. 지나간 허물늘 뉘우치고 새롭게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 (고사성어)
24. 활을 만드는 사람 (국어)
26. 목메어 욺, 흐느껴 욺 (국어)
28. 그 위에, 더군다나 (신 31:27)
31. 매우 사랑하여 소중히 여기는 모양 (고사성어)
31. 오순절, 맥추절 (출 34:22)

세로 푸는 열쇠

1.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고 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심 (마 26:30)
2. 짙은 남색에 붉은 빛을 띤 색 (아 7:5)
3. 찬송가 34장 OOOO 이 시간
4. 성전 문지기의 한 사람으로 그가 세운 가족의 이름 (대상 9:17)
6.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개거나 흐리거나 하늘 대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작 변화의 현상 (눅 12:56)
8. 처자를 남에게 부탁함 (명사)
10. 사람의 가창을 주체로 한 음악 (명사)
12.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 6언 중 5번째. 내가 OOOO. (요 19:28)
14. 에스더의 사촌 오빠 (에 2:5)
18 마게도냐인이니 바울의 동역자 (행 19:29)
19.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 (명사)
21. 어렵고 궁함 (신 24:14)
23. 남에게 선사로 주는 물건 (창 30:20)
25. 광야에서의 그리스도의 단식, 수행을 추억하기 위하여 단식, 속죄를 행하도록 규정한 40일간의 기독교의 정진 계절
27. 열렬히 사랑함 (국어)
29. 몇날 (창 24:55)

정답자	유한나, 박제인, 우순우 권사, 박경우 권사, 사종현

정답자 추천은 김연희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브	엘	세	바	■	헌	신	의	달
■	바	■	다	시	금	■	정	■
사	알	본	■	골	■	사	부	인
모	■	도	살	■	암	마	■	애
드	빌	■	르	움	미	■	하	와
라	■	삼	가	■	엘	라	■	성
게	르	손	■	은	■	사	무	실
■	우	■	지	혜	자	■	화	■
브	엘	랴	다	■	청	상	과	부

아가페 407호 문제정답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친교실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3월 4일(주)-3월 21일(수)
3. **당첨자 발표**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2018년 4월호에 발표합니다.
4. **상품안내**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2018년 1월 새가족 안내

WELCOME

새가족 환영회새가족 환영회 안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OREAN MINISTRY

CHINESE MINISTRY

새가족 이야기 – 더 가까이 만나요!

정인환 청년

뜨거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게한 퀸장에서의 첫 예배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검색하여 퀸즈장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하숙을 하게 된 것도, 롱아일랜드에 아는 목사님이 계심에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이 저를 예배에 집중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위해 주신 기회라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는 예전 직업상, 비록 큰 도시는 아니어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여러 한인교회를 가보았지만, 퀸즈장로교회처럼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담임목사님 또한 청년과 같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려는 듯 열정적으로 외치며 설교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 주 이후 모든 예배가 궁금하여, 1부 예배부터 4부 청년예배까지 골고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조금씩의 다른 특색이 있었고, 비록 본문말씀은 같았지만 각기 다른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퀸즈장로교회에서 첫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예배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저는 한국에서 보낸 청년 때의 뜨거운 예배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아직은 퀸즈장로교회에 하나하나 적응해가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내가 만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시간들이 너무 기대 됩니다.

퀸즈장로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매월 새가족 포스터를 통해 우리와 한 지체된 새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아가페에서는 '새가족 이야기 ' 를 통해 더욱 가까이 새가족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새가족 이야기' 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의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